

일진전기, DC 60,000A 단락기 국산화

일진전기(대표 : 홍순갑)가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오던 대전류용 DC 단락기를 국내 최초로 완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진전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DC 60,000A 단락기의 국산화 개발에 착수, 1년만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류용 DC 단락기는 직류전원을 개폐하는 장치로서, 전기도금, 분체도장, 가성소오다 및 박판 제조설비 등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일진전기에서 개발한 DC 단락기는 기존

수입제품은 설비의 부분적 고장이나 설비의 증설이 필요할 경우, 전체라인의 전력을 중단해야 했으나, 메인(MAIN)용과 바이패스(BY-PASS)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전체라인의 전력을 중단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에서 전류를 개폐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격별(20,000A, 40,000A 등) 제품공급과 전류접속부위의 변경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해 사용자가 설치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희성전선,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신제품 출시

최근 희성전선이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희성전선(대표 : 양창규)이 내놓은 히든카드는 첫째 트레이용 난연케이블로 난연특성을 전기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제품으로 기존 HF-CO 및 FR-CV와 대비했을 때 난연특성은 동등이상이고 비용은 저렴한 제품이다.

희성전선 관계자는 “특히 유독성가스 발생량이 적어 화재시 HCL가스 발생량이 18%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또한 “접속등 취급이 용이하다”고 제품

의 강점을 피력했다.

실제로 이 제품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우수한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도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 지중 전력케이블, 각종 구출선, 광산용 케이블, 송배전용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아파트 등이다.

다른 제품으로는 영상수신용 (고)발포 3중차폐 저손실 동축케이블로 내부도체에 동선, 절연체에 (고)발포 폴리에틸렌, 외부도체에 알루미늄 라미네이트 플라스틱 테이프와 주석 도금 연동선 편조를 사용하고 외부 도체상에 비닐을 피복한 손실이 적으며 차폐특성이 뛰어난 케이블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은 차폐를 3중으로 실시해 광대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종합 유선방송 기자재 형식승인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용용도를 묻는 질문에 “정제 파비가 양호하고 광대역에서 사용가능함으로 유선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영상신호 전송시스템에서 사용된다”고 말했다.

금번 회성전선의 신제품은 급속한 시장개방의 환경에서 기존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에서 가격 경쟁력이 보다 우수한 경제적인 제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회성전선은 1947년 국내최초의 전선회사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간산업인 전력망, 통신망구축과 공업선진화를 이룩한 각종 산업 및 건설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최

고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굴지의 전선업체 3사중 하나로 인프라 구축과 전산시스템에 있어서는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보다 우수한 광통신케이블을 생산해 한국통신 등 국내시장 출시와 러시아, 중국, 아랍 등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스위스 Brugg사와 기술 제휴해 생산되는 OPGW(광복합가공지선)는 세계 최고의 품질 수준을 자랑하고 LAN케이블은 UL인증을 획득,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월드컵과 관련해 출시될 아직은 비공개된 제품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양전기, 중국 현지공장 준공 품목 확대 계획

계양전기(대표 : 이상익)는 중국 소주(蘇州)시에 위치한 계양전기 중국공장에서 소주시장, 상해 총영사관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계양전기는 올 한해동안 중국공장에서 4인치 그라인더, 드릴, 센터 등 6기종 100만대를 생산해 전량 수출할 방침이다.

계양전기는 중국현지 공장 마련을 위해 '99년도부터 8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중국 정부로

부터 6천평의 부지를 50년동안 임대받아 공장을 준공했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공장 준공과 함께 첫 생산에 들어가 초기 6기종을 시작으로 점차 생산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 6천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계양전기는 중국시장에서 보쉬, 블랙앤드데커 등 세계적인 전동공구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LG산전, 국내 최초 인버터 판매 50만대 돌파

LG산전(대표 : 김정만)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인버터 제품 판매대수 50만대를 돌파했다.

LG산전은 지난 25일 천안공장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0만번째 인버터 제품 출하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50만대 판매달성은 지난 '84년 국내에서 최초로 인버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17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LG산전은 지난 '94년부터 모든 인버터 제품을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판매하기 시작했으며 '95년에는 국내업체중 유일하게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인버터 전 기종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LG산전의 이번 누적판매대수 50만대 돌파는 외국과의 기술제휴 모델을 위주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100% 자체 모델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버터의 국산화와 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버터(Inverter)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 전동기(모터)에 공급함으로써 전동기 속도를 고효율로 쉽게 제어하는 기기를 말한다.

전동기의 속도를 정밀 제어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어 각종 송풍기, 펌프 및 공작기계, 섬유기계 등의 자동화 설비에 널리 쓰이고 있다.

올해 국내 인버터 시장은 약 26만대 규모로 예상되며 LG산전은 약 37%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은 최근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누적판매대수 60만대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산전, 전자개폐기 2만3천대 수주

LG산전(대표 : 김정만)은 최근 이란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이란 남부 커르먼지방의 '농업용수 관개 프로젝트' 입찰에서 전자개폐기 2만3천대, 110만달러어치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LG산전이 이번에 납품한 전자개폐기는 원격신호에 따라 전력을 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농업용수용 모터에 부착된다.

LG산전은 "해의 단일 프로젝트에서 전자개폐기를 2만3천대 수주한 것은 국내업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LG산전 창사이래 최대 규모"라며 "독일 지멘스, 스웨덴 ABB사 등 세계적인 전력기기업체

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산전은 지난달 국내 중전기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자개폐기 전기종에 대해 CE(유럽공동체 인증)마크와 UL(미국안전규격)마크를 획득,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력기기 수요가 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시장 공략을 위해 기중차단기(Air Circuit Breaker) 제품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 시험소가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 인증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주)케이디파워, iKEN서비스로 아파트 전기시설 사이버 원격관리

아파트의 전기시설물을 사이버로 관리하는 '사이버 아파트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시대'가 열렸다.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기존의 iKEN(Web 기반 실시간 전기안전관리서비스)에 (주)인프라넷(대표 : 김형필)에서 구축한 사이버아파트 초고속 통신망 기반과 Web기반 실시간 전기안전관리서비스를 결합한 '사이버 아파트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LAN, ADSL, B&A 등 모든 형태의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전기안전관리서비스가 가능,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를 HA(홈오토메이션) 기능과 결합해 시설최적화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이다.

케이디파워는 현재 iKEN서비스를 통해 공장이나 빌딩등에 전기안전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의 iKEN서비스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FIK인증 획득, 이 서비스를 받는 수용가는 화재보험료 5% 정도의 할인혜택도 주어진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에 케이디파워와 공동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인프라넷은 한국통신 메가패스 B&A 협력업체로서 전국에 총 3천여 아파트 단지에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회사다.

특히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국통신의 IMT-2000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장비 전문업체인 (주)한터기술과 공동으로 전화선을 이용해 양방향 최고 10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초고속 인터넷 장비를 개발, SI(시스템통합) 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중전기기 대전력 단락시험용 디지털 측정분석시스템 구축

중전기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전력 단락시험용 디지털 측정분석 시스템'이 한국전기연구원(원장 : 권영한) 전기시험연구소의 김맹현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광응용 계측기술 및 디지털기술과 자동분석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대전력 단락시험시 대 전류가 대지를 통해 흐를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전압상승, 노이즈 침입, 전자파의 측정선로 침입으로 인한 전기신호 왜곡현상 등을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 측정오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뿐만 아니라 대량이 시험측정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장치는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했으며, 측정분석 및 시험결과도 국제단락시험소연합회(SIL),

대전력기술연구회(CIGRE) 등 국제규격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한편 전기연구원은 오는 2003년까지 중전기기의 주요 측정요소들을 검출하는 분류기 및 분압기도 고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측정분석시스템, 분류기 및 분압기 관련 기술을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동전업사, COS 본격 출시

경동전업사(대표 : 조형운)가 1년여의 연구 끝에 '특고압 컷아웃스위치(C.O.S)'를 출시했다.

25.8kV 100A용인 이 제품은 퓨즈와 절연체가 맞닿은 부분(보빙)을 100% 황동으로 처리, 통전시 열발생을 최소화시켜 수명을 늘렸다는 특징이 있다. 또 볼트, 너트 등 각종 부품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채택해 부식에도 강하다.

경동전업사의 관계자는 "개발당시부터 고객이 만

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고 다짐했다"며 "규격과 원칙에 맞는 우수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동전업사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100% 리콜을 보장하는 등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고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